

조선시대 문헌설화에 나타난 불승의 존재방식과 속화현상

- 『용재총화』를 중심으로 -*

박상란**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불승의 존재방식
3. 불승의 속화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용재총화』에 등장하는 승려의 면모를 속화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승려들을 유형별로 나눈 후 그 서사적 특징, 전승 배경, 찬집 의식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속화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승상이 고승, 요승, 우승, 속승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전기의 불교사적 특수성과 문헌 찬자의 불교관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네 승상은 조선전기 사대부 찬집 설화에서 승려가 취할 수 있는 존재방식의 전부라고 할 만하다.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들 네 가지 존재 방식을 검토하여 불교사의 특수성과 문헌 찬자의 편찬 의식에 따라 각 승상이 세속화되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속화의 의미와 방식, 원인을 검토하였다. 특히, 네 가지 승상의 존재 방식을 감안하여 ‘신성성을 약화시키기’, ‘신성성을 무화시키기’, ‘우스꽝스럽고 비천하게 만들기’, ‘부도덕한 인물로 만들기’ 등 네 가지 속화 방식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속화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살피고 정형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700).

** 동국대 문화학술원 연구교수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사대부 찬집 문헌에 수습된 불승 관련 이야기는 고승대덕을 대상으로 불교적 세계관을 천양하고자 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승려들의 삶을 세속적인 차원에서 그려내었다. 물론 그 요인으로는 당시 불교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승려의 현실적인 세속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사원 경제 감축, 도첩제 폐지 등에 따른 승려의 사회적 천민화, 고승에 대한 핍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승려의 속화 현상이 이러한 현실적인 불승의 처지에만 기인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승전류에는 조선초기 이래 활약했던 고승들의 행적과 교유 관계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에도 많은 고승들이 불문 안팎에서 큰 활약을 했음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불승의 면모에 관한한 해당 문맥을 맥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야기가 찬집되는 과정에서 생겼을, 굴절 내지 개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바 조선시대는 척불을 국시로 내걸었고 문헌설화는 그 지배층인 사대부 문인의 손에서 찬집되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조선시대의 불승 관련 설화 전승에 예사롭지 않은 영향을 끼쳐 그 면모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문헌설화에서 불승 관련 이야기를 별도로 고찰해 척불이라는 불교사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불승이 형상화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 찬집 문헌에서 불승 관련 설화를 수집한 후 여기에 나타나는 불승의 속화 현상을 문헌 찬자를 포함한 사대부 계층의

찬집의식과 긴밀히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주 연구 대상으로 『용재총화』¹⁾를 택한 것은 이것이 조선초기의 대표적인 잡록, 야담집이라는 점, 동시대 다른 문헌에 비해 불승 관련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용재총화』에서 승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 이를 유형별로 나눈 후 각 유형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세속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전과 문헌에서 관련 이야기를 수집해 해당 이야기의 전승상의 위상을 검토한 후 찬자의 계층적, 개인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찬집 의식을 밝히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유형을 중심으로 불승이 속화된 방식과 원인 등을 정리하려고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재총화』에 수록된 관련 설화 일람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설화 일람표]

대상 (소재)	편수	장르·유형명	편 명	출처
고승	9	고승-승전	효심 깊은 혼수대사의 출가 행적, 그리고 시에 대한 안목	6권
			고승-일화	유생 세 명을 혼내 준 나옹화상
		낙산사 승려 해초의 반격		6권
		시승-일화	학문과 시작에 능한 고승 둔우	6권
			문사들의 사랑을 받은 학전 스님	7권
		무애승-일화	키 큰 무애승 장원심	6권
			닭중의 노래	6권
			파계승 신수의 울부짖음	6권
			친한 일로써 공덕을 끼치는 자비라는 중	7권
요승	3	요승-일화	신돈의 음행	3권
		파계승-일화	재상집 과부와 사통하다 혼쫓난 중	5권
			여자를 잊지 못해 뱀이 된 중	5권

1) 『대동야승』(조선고서간행회본) 수록본.

우수	5	우수-일화	광대놀이꾼 영태에게 속은 어리석은 중	3권
			운통선생에게 속아 절을 빼앗긴 중	5권
		우수-민담	상좌에게 꿀탕먹은 어리석은 중1	5권
			상좌에게 꿀탕먹은 어리석은 중2 '물 건넌 중'의 유래-색탐 때문에 거둬 낭패당한 중	5권
속승	2	기예승-일화	글씨를 잘 쓴다는 축구라는 중	3권
		부역승-일화	토목공사에 동원된 중	9권

2. 불승의 존재방식

1) 고승

그간 잡록, 야담집에 수록된 고승담과 관련하여 사대부 찬자의 손에 승상이 왜곡되었다는 대략적인 논의가 있었는데²⁾ 그 실상과 맥락을 서사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잡록, 야담의 찬자를 막연하게 사대부라고 하면서 논의를 펴 왔는데³⁾ 사대부 중에서도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 찬집 의식과 해당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그 형상화 방식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역사적인 실상에 따라 고승은 시승, 무예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며, 서사화 방식에 따라 같은 고승을 다루더라도 승전, 일화 등 상이한 장르로 갈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염두에 두고 고승-승전, 고승-일화, 시승-일화, 무예승-일화 등의 하위 유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2)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74-75쪽.

3) 김승호, 『野談所載 僧의 인물기능과 분화』,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257쪽.

(1) 고승-승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효심 깊은 혼수대사의 출가 행적, 그리고 시에 대한 안목>이 유일하다. 이 이야기는 여말선초의 고승 환암 혼수의 삶을 그린 것으로 대략적이거나 전래 승전의 결구를 갖추었다. ‘탄생(誕生)-성장(成長)-출가(出家)-구도(求道)-오도(悟道)-이타행(利他行)-열반(涅槃)’이 전형적인 승전의 구조라면 이 이야기는 대체로 승전의 구조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전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의 서사적 특징을 논의하기로 한다.

- ㉠ 사냥 관련 일화
- ㉡ 출가하여 정진함
- ㉢ 계를 남기고 열반에 들
- ㉣ 관련 시화

이는 승전의 구조상 ‘성장-출가-구도-열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은 성장 과정이다. 불전을 포함해 승전에서 성장은 출가의 계기와 긴밀하게 관련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점이 입증된다.

혼수는 13세 때 사냥을 하다가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의 애틋한 동정을 목격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여 사냥을 중지했다고 하였다. 혼수의 효심이 강조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혼수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여’ 사냥을 그만 두었다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는다. 다만 혼수는 금강산에 들어가 2년 동안 공부하다가 어머니를 위하여 귀가해 5~6년을 지내고 어머니가 죽자 대자법화경을 써서 명복을 빈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4) 『청룡사지』, <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권근, 『陽村集』 37권, 碑銘條에 수록)

점은 본 이야기에도 나온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협불점석(脇不霑席)의 정진을 중단하였다 했으니 그의 효심은 각별한 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효심이 성장 과정에 반영되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여 사냥을 중지했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냥 중지, 더 나아가서 출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기다리는 동정을 목격하고 ‘짐승이 그 새끼를 생각하는 것이 사람과 무엇이 다른고!’ 라고 했으니 짐승에게도 사람과 같이 자식을 생각하는 정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수는 그러한 미물을 죽이는 행위 내지 그것을 포함한 세속의 삶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사냥을 중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각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혼수에게 있어 그러한 점에서는 인간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짐승들에게 사냥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참담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혼수는 사냥을 포함한 세속적인 폭력에 회의를 느끼고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은 출가한 혼수가 불경을 배우는 데 뛰어났다는 점, 그리고 산중에서 일생동안 정진할 듯하다가 어머니를 생각하여 일시 귀가했다는 점 등 그 출가 이후 구도 과정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구도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은 갈비뼈가 자리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협불점석’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다만 그에게는 이러한 각고의 구도 과정에 비해 별다른 오도의 순간이 없다. 고승의 영험을 적시하기에 적절한 오도의 순간이 생략된 것은 그만큼 혼수의 이야기가 탈신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의 열반과 관련해서 열전에는 인정식 기술로 되어 있던 것이 열반 일시를 예측하고 계를 남기는, 일반적인 승전식의 신비한 일화

로 바뀌어 있다. 죽음을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 일시와 가는 길목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승의 죽음에 부합되는 열반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계의 내용을 보면 마음먹은 대로 일생을 살았기에 병이 든 것이 당연하다고 하여 죽음에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 대신에 ‘숨을 거뒀다’라고 하여 역시 죽음을 세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혼수의 승상은 불경을 배우는 데 뛰어나고 수행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요약된다. 승전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르면 ‘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여기에 효심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혼수의 승상은 구도 내지 효심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열전에서 혼수는 어떤 승상으로 나타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수열전은 나이와 연대를 고려하여 행적을 간단히 언급한 인정식 기술이 대부분이다. 여말 선초 고승의 행장이 전대에 비해 건조한 문체로 사실 차원의 행적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현의 찬술이 고승의 탄생, 오도와 관련된 신비한 사건이 간과된, 건조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열전의 성격에 기원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열전에는 왕실 차원이긴 하지만 혼수가 고승으로서 행한 몇 가지 행적이 보인다. 즉, 우왕 11년에 천지재변(天地災變)을 물리치기 위한 백산개도량(白傘蓋道場)을, 이듬해에는 공민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정회(佛頂會)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왕명에 의해 수창궁(壽昌宮)에서 소재(消災)를 주관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성현의 찬술에서는 이러한 행적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성현이 찬술한 혼수의 형상은 열전의 영향뿐 아니라 찬자의 계층적, 개인적인 성향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찬자는 ‘구도’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주로 하는 사대부로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덕목이다. 그 ‘도’의 정체보다 그것에 이르고자 하는, 각고의 정진 자세는 사대부에게도 소중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승전식 이야기 전개와 별개의, 시화가 후반부에 나온다. 즉, 혼수가 윤소종의 시를 마땅찮다 하고 목은의 시를 극찬하고는 보물로 여겼다는 것이다.⁵⁾ 찬자 역시 문제의, 목은의 시를 칭송함으로써 혼수의 시안(詩眼)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전반부에서는 그 구도 자세 내지 효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승전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다소 벗어나 있고⁶⁾ 후반부에선 시안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혼수라는 고승은 자신의 도를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효심이 두드러지고 시안이 뛰어나다는 승상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승으로서의 행적, 본분사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고 그만큼 세속화된 승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안은 뒤에 나오는 둔우, 학전 등 선초 시승(詩僧)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이 점에서 혼수 이야기는 일반적인 승전에서 시승의 일화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고승-일화

이 유형은 고승으로서의 삶 전체와 그 의의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생성된 일화로 그 서사 대상은 전대와 당대의 유명 고승이다. 이 중 전대의 고승을 다룬, <유생 세 명을 혼내 준 나옹화상>을 예로 들어

5) 물론 이는 혼수가 전대에 유명 사대부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인으로서의 덕목을 발휘한 면모가 전승된 것으로 예컨대 <환암기>(『동문선』 74권)에는 이색이 혼수와 허심 탄회하게 교류한 일상이 그려져 있다.

6) 『삼국유사』 등 고려 승전에 이르러 이미 인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승전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172쪽 참조.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나옹이 회암사 주지로 있을 때 그를 숭앙하는 남녀가 물결처럼 모여 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고승으로서 진면목이 사방에 알려져 일반 대중이 그의 법문을 듣고자 몰려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법의 지혜에 막히는 것 없이 통달하여 자취가 기이하고 행적이 이상스럽다고 이름이 천하에 떨쳤으나, 혹세무민하며 진실을 크게 어지럽혔다.”⁷⁾다는 조선 초기의, 나옹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인다. 평가가 부정적인 데로 기운 것은 당시의, 불교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전대에 나옹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의 신망은 나옹 관련 기록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색의 <운필암기>, <향산 안심사 사리석종기>⁸⁾, 권근의 <월강기>⁹⁾, 이달충의 <나옹화상 어록발>¹⁰⁾ 등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나옹을 왕사로서 깊이 신봉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물색 모르는 유생들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저 머리 깎은 것이 무슨 요술이 있어서 사람을 이처럼 놀랍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보고 놀러버리리라.” 하고 들이닥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들로부터의 크나큰 ‘신망’은 유생들의 공격을 발동한 계기이자, 고승으로서 나옹의 면모를 시사하는 중요한 서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생들이 막상 가서 보니 나옹의 용모가 ‘홀륭하고 눈빛이 밝았’으며 ‘씩씩하고 점잖아 보였’다 하였다. 이는 ‘요술’로 논단했을 뿐인 나

7) 『경상도지리지』, 영해조.

8) 이상 『동문선』 74권.

9) 『동문선』 80권.

10) 『동문선』 102권.

옹의 위대한 면모를 유생들이 직접 목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상적 토대가 전혀 다른, 더구나 허황되다고 믿어왔던 불교 성직자의 면모가 유생들이 보기에도 훌륭했다는 점에서 나옹의 행적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다니니 그 중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는 있을 것이다. 지혜로써 이르지 못하는 곳이니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말하라.”라고 하는 큰 소리가 났다 하였다. 여기에서 ‘한 구절’이라는 것은 고승의 문답에 응해 제시하는 ‘화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논어에 나오는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의 논조를 빌려 유생들을 상대한 것으로 나옹은 이들이 이미 올 줄 알고 그들의 신분, 식견에 맞는 설법을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은 궁극적으로는 유학에서 말하는 ‘지혜’ 이상의 덕목을 들어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천양했다는 의미가 있다. 즉, 나옹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유학의 논법으로 시작하되 불교의 근본 이치를 내세워 유생들을 감화시킨 것이다. 앞에서 유생들은 그 훌륭한 풍모를 목격하고 고승으로서 나옹의 면모를 인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여기에서는 사건을 미리 예측하는 신이한 면모를, 그리고 대중의 수준에 맞게 설법을 베풀고 공격적인 성향의 상대방까지 감싸 안는 불보살의 면모를 나옹에게서 발견하고 경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나옹의 고승으로서의 위상, 풍모 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생들의 공격에 맞서는 나옹의 대응 방식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나옹화상행장>¹¹⁾에는 휘, 호, 속성, 출신, 가계 등에 대한 인정식 기

11) 『한국고승집』(고려시대3), 경인문화사, 1974, 248쪽.

술에 이어 탄생담, 출가담이 전형적인 승전식 구조에 따라 결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나옹의 승전은 조선후기의 『동사열전』에 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신화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신비한 탄생담, 생사의 고뇌를 이기지 못해 산중으로 떠나는 출가담 등은 고승으로서 나옹의 삶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구전설화에는 가난한 하급관리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맞는다는, 나옹의 탄생담이 있다.¹²⁾ 영웅으로서 고승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후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뿐이지만 이러한 탄생담은 고승의 면모와 썩 어울리지 않는다. 위대한 삶의 경지를 강조하느라 그 고난을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몰고 갔다고 할 수 있지만 혹, 설화 향유자들이 자신들의 각박한 삶의 현실을 반영하느라 참담한 탄생담을 결구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구전설화 중 오이 시주와 관련된 이야기¹³⁾는 고승의 출가담으로서 손색이 없다. 불보살에 의해 고승으로서 나옹의 미래가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옹 자신이 이미 그 일을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신이한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옹이 떠나가면서 막대기를 쫓아 놓고 그 나무가 죽으면 자신이 죽은 줄 알고 그 나무가 살아 있으면 자신이 살아 있는 줄 알라고 했다는 ‘반송’ 관련 이야기 역시 고승으로서 나옹의神通력을 암시하는, 신비한 이야기다.¹⁴⁾ 즉, 이들 이야기는 나옹이 이미 일정한 도의 경지에 이미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고승에 대해 기대하는,神通력과 긴밀히 관련됨을 알 수 있다.

12)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에 나옹 전설이 7편 실려 있는데 그 중 5편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다.

13) 조동일 채록본 7편 중 2편이 이와 관련됨.

14) 조동일, 위의 책에 실려 있는 전설 7편 중 6편이 이와 관련되어 있고, 『한국구비문학대계』(7-6)에 실려 있는 나옹 관련 전설 6편 중 4편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옹의 승상은 열전에서는 고승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고 구전설화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고난을 겪고 이를 이겨내는, 민중적 영웅의 면모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성현의 찬술과 비교해 보면 전자의,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되 이것이 승전식보다 일화로 결구됨으로써 그 본분사의 의미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그만큼 나옹의 승상이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시승-일화

시승은 승려로서의 본분사보다 시작(詩作) 내지 시구(詩求) 행위를 통해 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행세하는 승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승에 대한 이야기로는 둔우와 학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문과 시작에 능한 고승 둔우>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이 이야기에는 고승으로서 둔우의 신비한 탄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한 일화, 그리고 출가담이 생략되어 있다. 다만 어려서부터 내전과 외전을 정밀히 탐구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둔우가 후에 유불(儒佛)의 사표가 되는 데 있어 중요한 징표라고 할 만한 것이다.

다음은 청장년기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 시를 잘 써 유학의 대가들과 교류했고, 문장에 있어 불가뿐만 아니라 널리 학자들의 존경을 받아 유불의 사표가 되었다 하였다. 그런데 둔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불교사의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즉, 배불의 상황에서 문벌가의 자식이 출가할 수 없어 불가에 글을 아는 자가 없었던 터에 외전에 밝은 둔우의 학식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구도를 위해 정진하다가 오도와 열반에 이르는, 그의 고승으로서의 본질적인 행각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그나마 고승으로서의 수행 면모가 보이는 노년기의 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 부분은 90여세의 나이에도 고상한 풍모와 강성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내면과 외면에 걸친 그에 대한 총평이다. 이어지는 글은 그에 대한 근거로서 육체적인 욕구에 초탈한 모습, 부단한 탐구와 수행의 자세, 자상한 하심의 면모에 대한 것이다. 청장년기의 면모에 비하면 수행 정진 내지 불경 탐구에 몰두하는 고승으로서의 면모가 적잖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고승으로서의 신이한 면모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도를 위해 정진하는 이러한 면모는 경험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딱히 고승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년기의 기사는 유일하게 고승으로서 둔우의 면모를 보여주지만 이마저도 ‘구도-오도’에 따른 신비한 면모가 생략되어 있어 본질적인 면에서 고승답으로서 많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둔우의 경우는 승전식 기술을 기준으로 할 때 ‘구도’ 외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협불점석’의 치열한 구도 과정을 겪은 혼수에 비하면 너무도 평이한 수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화 관련 기사가 일대기적 서술 후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혼수의 경우와 같지만 둔우의 경우 노년기를 빼면 전체가 시승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혼수의 경우 남의 시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다는 점이 시화의 핵심 사항이라면 둔우의 경우 직접 자신이 쓴 시를 놓고 적극적으로 시안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결정적으로 그의 문집인 『천봉집』이 세상에 전한다는 침언은 그가 당시 문사로서도 넉넉한 솜씨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점에서 명망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요컨대 둔우의 경우 외전에 밝고 시작에 능해 대학자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유불의 사표가 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마지막으로 자작시에 대

한 일화가 제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승으로서 위대한 면모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시승으로서의 솜씨, 명망, 결과물, 이것이 고승 둔우를 세속적인 인물로 전환시킨 주요 요소이다.

『용재총화』 8권에 우리나라는 문장가가 적고 저서는 더욱 적다고 하면서 찬자 당시까지의 문장가와 저서를 소개하는 중에 “『천봉집』 한 질은 중 둔우가 지은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당대 문장가의 대열에 둔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문재가 출중한 것으로 문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둔우는 고승으로서보다는 승려로서 문재가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한 이로 문사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정황이 위와 같은 이야기의 전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무애승-일화

다음은 당대 고승으로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히려 승려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신분, 사상,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무애승들에 대한 것이다. 무애승 관련 이야기에는 장원심, 닭중, 신수, 자비 등에 대한 것이 있지만 여기에선 <키 큰 무애승 장원심>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처음 부분은 키가 유난히 크다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그를 대중 속에서 특이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뒤에 이어지는 그의 무심함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그는 익살스러운데다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한데서 잠을 잘 정도로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 대중의 삶의 방식과 현격하게 다른데 이러한 점이 그 장대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부각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선 이러한 그의 풍모가 어떻게 시현되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원심은 나라에 재해가 있으면 제자를 모아 정성껏 빌어 이를 구제한다고 하였다. 또한 물질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 대중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앞서 말한 그의 무심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대중 보시를 통한 보살행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차별없이 대했는데 이러한 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버려진 시체를 업고 가서 묻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장원심은 한없는 무심(無心)한 성격을 지니고 국가 혹은 대중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이타행’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행은 불보살의 자비행위라는 점에서 영험담의 성격을 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타행은 다소 불충분하게 실현되었거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가적 재해 때 기도를 드려 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기도의 결과 성취되었을 영험담이 생략되었다. 또한 자비심으로 시체를 업었는데 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다가 제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겨우 해결되었다는 대목에선 그의 보살행이 희화화되었다. 결정적으로, ‘열반’ 대목에선, 승려로서의 본질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소신공양(燒身供養)의 고통을 참지 못할 뿐더러 거짓으로 제자들을 무마하는 행위까지 한다. 이로써 소신공양 내지 열반 대목에서 기대하기 마련인 영험담이 소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신공양을 통한 열반 자체가 희화화되었다.

이는 영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 고승의 이타행에 대한 회의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승으로서의 법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읽힐 소지가 있다. 즉, 장원심의 경우 대중에 대한 자비행이 불충분하거나, 어긋나거나, 희화화되는 방식으로 고승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였고 이 점에서 다소 세속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고승담의 찬집 의식

성현은 당시 조정의 인사들 중에서도 강도 높은 배불론자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그 근거가 대개 『용재총화』 등에 나오는,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일화나 논설¹⁵⁾, 그리고 뒤에서 다룰, 악행과 우행을 일삼는 승려를 그린 설화이다. 전자는 불교 자체보다는 그 폐해를 지적하는 글이고¹⁶⁾ 후자는 구비전승적 성격이 강한 설화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성현이 당시 사간으로서 배불 여론을 수렴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이들 설화는 현재까지도 구전되는 것으로 색욕을 멀리해야 하는 승려를 둘러싸고 민간에서 형성된, 해학적인 성격의 것이다. 물론 당시 배불론자들의 논거가 대개 불교의 폐해상에 있다는 점, 또한 구전되던 것이라도 승려를 부정적으로 다룬 이야기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성현 역시 배불론자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지만 척불의 시국에서 사대부로서의 운신의 폭을 염두에 두고 불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현은 고승 신미의 아우이자 승려처럼 살았던 김수온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었다. 척불의 시대에 살았지만 성현은 이러한 사제지간의 친연성을 통해 고승의 면모를 좀 더 가까이서 접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 전해들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당시 망각되기 쉬운, 훈수라는 고승의 족적을 수습한 것은 이러한 성현의, 승려에 대한 안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훈수의 경우 승전에서 전승되지 않는 시화가 수습된 것은 찬자 내지 장르의 성향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문한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잡록에서는 같은 고승이라도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모습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서 사대부

15) 대표적으로 『용재총화』 8권에 나오는, 승사의 나쁜 풍속에 대한 논설을 들 수 있다.

16)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128쪽.

들이 갖기 마련인, 현실주의적인 관심에서 승상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승려의 삶을 호의적으로 다루었다 하더라도 사대부의 손에서는 승상이 제한적으로 묘파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혼수의 경우 사대부 주변의 승려를 입전하고, 무엇보다 승상을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옹의 경우, 유생에게 당당히 맞서는 승상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척불의 시대에 성현이라는 사대부 문인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초기 무명씨의 <벽불소>¹⁷⁾에 담겨 있는 배불론적 의론은 당시 문사들 주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고승이 요승 혹은, 악승으로 지목될 정도로 승려 내지 불교에 대한 태도가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 성현이 유생에게 당당히 맞서는 승상을 제시했다는 것은 앞서 말한 그의 호불적 배경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고승의 신이한 면모가 탈색된 것은 그의 신분적 특성에서 비롯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나옹은 유학의 논법으로 대응하면서 정작 불도로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물론 이는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에 맞게 감화시키는, 불보살의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당시 그에겐 그 외엔 다른 방도가 없을 만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제압하느냐 제압당하느냐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인식론적 바탕에서 논리를 찾거나 그 약점을 들어 맞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고승이라는 존재는 기껏해야 현실적인 논리에 바탕을 둔, 화법으로 유생들을 제압하는, 논객 정도로 보인다. 또한 이 이야기의 경우 찬자가 견문한 단편적인 사건에 대한 일화란 점도 고승의 전모를 드러내기에

17) 『동문선』 56권.

는 많은 한계가 있다.

시승의 경우 앞의 고승들보다 신이한 면모가 한층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승은 내외전에 밝으면서 문사들의 기예인 시작에 능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주변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름만 고승이지 문사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둔우의 노년기 면모는 찬자의 만형과 둘재형¹⁸⁾이 각기 22살과 16살에 회암사에 가서 글을 읽을 때 직접 목격한 것이다.¹⁹⁾ 그런데 이들 젊은 유생의 눈에 둔우의 면모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승으로서 둔우의 신이한 면모가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면모가 성장 후 찬자인 성현에게도 전해져 그 역시 경험적 차원에서 둔우의 인간상을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무애승은 무심함으로 이타행을 실천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무애승은 유학자로서는 드물게 도학만을 중시하지 않고 불교, 잡기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무엇보다 노장적 의미의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며 내심 유불의 경계를 넘어선 성현으로서는 가장 인상적인 승상일 터이다.²⁰⁾

그런데 무애승은 모두 찬집 당시 시중에 알려진 승려들이다. 또한 일부 무애승은 찬자 성현과도 직접 만난 적이 있으니 이들 이야기는 찬자가 직접 목도한 것이기도 하다. 신수는 파주에서 성장했는데 성현이 상을 당해 파주에 있을 때 늘 왕래하는 사이였다고 하였다. 자비의 경우 “내가 일찍이 높은 벼슬아치들과 한곳에 모여 있는데 그 중도 또한 와 있었다.”고 하는 대목을 보면 성현과 한 자리에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8) 성임(成任, 1421~1484)과 성간(成侃, 1427~1456).

19) 둔우가 회암사에 주석한 것이 세종 25년(1443)이기 때문이다.

20) 홍순석, 앞의 책, 51-54면; 이내중, 『성현의 시론과 작품세계』, 고려대 석사논문, 1986, 41-42쪽.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행적에 벼슬아치들에 대한 태도가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²¹⁾ 이들은 성현을 비롯한 사대부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현이 직접 만나거나 목격한 일이 아니라도 사대부 사이에서 전해지는 일화를 중심으로 이상의 이야기가 찬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성현은 자기 주변에서 회자되던, 그리고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이상의 이야기들을 찬술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무애승의 형상은 성현을 비롯한 사대부의 시각에서 걸러진, 승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타행이 다소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찬자를 비롯한 사대부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여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고승의 경우 사대부 찬자인 성현의 손을 거치면서 본래의 면모가 다소간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세속적인 면모가 가미된, 승상으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요승

(1) 요승-일화

요승은 권력을 전횡하고 혹세무민하는 승려를 말한다. 그런데 요승이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개 권력을 빙자해 음행을 일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설화에서 요승의 대명사는 단연 고려 말의 신돈이다. 신돈은 정치적으로도 악명을 떨쳤을 뿐 아니라, 강제적인 음행으로 민간에 해를 끼친, 설화상으로는 최악의 승상이다.

<신돈의 음행>은 신돈이 사대부의 처첩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그

21) 見公卿不必敬(장원심), 朱門貴宅. 無不歷到(답중), 雖達官素不相識者. 一見如舊. 呼名相爾汝.(신수), 雖公卿大相皆以名呼之.(자비승)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석방을 위해 찾아온 부인을 강제로 음행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일이 매일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성욕 증강을 위해 날마다 흰말의 생식기를 잘라 먹거나 지렁이를 회쳐 먹는다는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다. 이로부터 요승 하면 권력을 전횡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라는 인식이 뿌리박히게 되었다 한다.²²⁾

조선중기 차천로의 『오산설립초고』에 신돈이 음행을 저질렀던 문제의 집에 가 보니 “곳곳에 우묵하게 구부러진 방을 만들어 대낮에도 깜깜”하였다 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신돈의 음행 사건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야기 말미의, ‘흰말의 음경’과 관련해서는 “흰 말을 잡아 그 음경을 말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의 아내에게 술에 타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음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흰말의 음경을 잘라 먹은 것이 여기서는 상대방 여자를 위한 최음제로 그 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바뀐 것이다. 기괴할 만치 지나친 성욕 추구가 이러한 변이형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 전성기 때 왕륜사 승려의 비행(간특함, 음란함)과 전횡을 다룬 이야기²³⁾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신돈과 같은 요승의 비행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돈의 음행 사건은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회자되었음을,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위의 이야기가 문헌에 포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대부 처첩을 음행한 사건은 신돈이 권력을 전횡하는 처지에서 행한 것이니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행세할 때의 일이다. 따라서 음행은 신돈이 승려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한 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세간에 전하는 그에 대한 추문은 모두 승려 신돈에 대한 것으로서²⁴⁾ 이는

22)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4,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160-161쪽.

23) 『태평한화골계전』 250화.

24) 이러한 지적은 이광우, 「신돈, 이세독립지인離世獨立之人에서 역승逆僧으로」, 『고

그를 더욱 괴팍한 인물, 추악한 인물로 낙인찍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행을 승려 신돈과 관련시키는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욕을 자제하는 일이다. 승려가 음욕을 다스리지 못할 경우 파계 행위로 치닫게 되어 성불은 고사하고 세속의 삶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욕은 성불의 장애물일 뿐 아니라 승려에게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돈은 성욕을 실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의 힘을 빌려 민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음행했다는 점에서 극악한 형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신돈은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승상을 띤다.

비슷한 시대 문헌에 수록된 요승에 대한 이야기로 <권모술수에 능한 일운이라는 중>, <영험을 조작해 상당량의 재물을 거둬들인 학조>, <고려조의 요승 학열>²⁵⁾ 등이 있다. 그리고 이는 후대 야담집에 보이는, <권력과 사치를 누린 보우>²⁶⁾,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절의 원장이 되어 악행을 일삼는 중 남봉>²⁷⁾ 등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반면 현전하는 구전설화에는 기자(祈子) 관련 음행과 불가사리 사건²⁸⁾을 연결하여 신돈의 파계 행위가 고려 패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 중 <불가사리>는 신돈의 음행으로 인해 고려가 패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다. <파계승 신돈>은 신돈의 기자 관련 음행을 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신돈과 불가사리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문헌설화에는 권력을 전횡하는 요승 이야기가, 구전설화

려 시대 인물 전승』, 김승호·임종욱, 이화, 1999, 210쪽.

25) 이상 3편, 『필원잡기』 2권; 대동야승 3권, 사우명행록; 『대동야승』 30권, 용천담적기.

26) 『어우야담』 2권, 종교편, 승려.

27) 『기문총화』.

28) 윤승준, 「불가살이 설화의 역사적 성격」,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참조.

에는 신돈의 음행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를 통해서 문헌 찬자들이 권력의 문제에 민감했다는 점을, 후자를 통해서 음행을 일삼는 요승 신돈의 형상이 민간에까지 퍼져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현은 이 중 민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음행을 일삼는 신돈의 이야기를 찬술하되 ‘불가사리형’처럼 권력을 전횡하는 과정에서 사대부의 여성을 범한다는, 선초 불승에 대한 관점을 가장 적실히 드러내는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2) 요승담의 찬집 의식

신돈과 같은 요승의 형상에 대해 고려 말기 승려들의 횡포, 타락의 행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문헌 찬자가 전적으로 없던 일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전 시대 승려들의 실제적인 타락상이 당시까지 회자되면서 요승 이야기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는 현실적으로도 고승이 요승이 되는 세상이었다. “전조(前朝) 말기에 승려 나옹이 허무적멸(虛無寂滅)의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무리들을 유혹”²⁹⁾했다는 조선 초기의, 나옹에 대한 평가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종 때에 요승이라 하여 주살(誅殺) 당한 천태종 고승 행호는 당대의 그 행적으로 인해 요승으로 평가받은 경우이다. 그 행적이란 백련사를 중수하고 흥천사의 주지를 맡아 불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말한다.³⁰⁾ 명종 때의 고승 보우도 같은 경우에 속하며 이러한 실례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사례는 모두 해당 승려가 기울어져가는 불교의 세를 부흥시키고자 비중 있는 사찰을 크게 중창하고, 이에 사부대중이 동조하여 신

29) 『세종실록』 85권, 세종21년 4월 18일조.

30)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혜안, 2005, 423-438쪽.

심을 크게 낸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이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세가 다시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신진사류들에 의해 형벌이 자행된 것이다. 이들이 당대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척불 정책의 와중에서도 임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었다는 점, 이들이 당시 불교사에서 상징적인 사찰을 중창할 무렵에 참형을 당했다는 점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고승이 요승으로 분장된 것은 불교와 유교의 역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불교사적 의미에서 그 행적이 뛰어난 고승일수록 사대부들의 표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참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요승이 특히, 조선시대 문헌 설화에 등장하는 것은 척불 여론을 배경으로 한 문헌 찬자들의 반불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³¹⁾ 이들은 유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당시의 배불 여론에 동조하는 한편 고승을 요승으로 분장하는 풍문을 그대로 문헌에 수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찬한 설화에서 요승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당시 회자되는, 풍문 그대로이며 이에 대한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요승은 조선시대 불교설화가 낳은 문체적 승상이라 할 만하다.

다만 신돈의 경우, 고려 말기에 이미 파계를 일삼고, 권력을 전횡한 요승으로 문제화되었다는 점이 위의 사례들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원나라 및 권문세족의 횡포에 맞서 자주적 노선으로 개혁을 추구하던, 개혁승으로서 신돈의 행적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31) 『필원잡기』 1권에서 서거정은 신돈을 ‘늙은 역적(老賊)’이라 하고, 추강냉화에서 남효온은 ‘적(賊)’이라 하였다. 여말선초 신돈에 대한 유자들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는 이존오(李存吾, 1341~1371)의 <논신돈소(論辛旽疏)>(『동문선』 52권)가 있다.

안 된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 평가가 조선 시대에 들어 정계에서 혹은, 민간에서 더 극심해졌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신돈이 획책한, 여말의 정치적 실책은 신홍 사대부의 역성혁명, 그에 따른 조선 건국과 척불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권력의 전횡 등 정치적 실책보다 파계 행위를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승려였다는 점을 내세워 불교 중심의 고려 시대를 부정하는 데 유효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민심에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기에 주효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 신돈의 파계를 문제 삼은 설화가 많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헌에선 신돈이 사대부의 처점을 음행했다고 하는데 구전에서는 기자 정성을 사칭해서 여염집 부녀자들을 음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한다. 따라서 이는 신돈이 승려 출신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를 척불 여론에 이용했으며 이것이 민간에 유포되어 승려 신돈의 음행 사실이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다른 고승의 경우에도 많이 나타난다.

史臣이 논하였다. “승려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설준(雪俊)은 모두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자들이다. 신미는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으므로 해가 백성에게 미쳤다. 학열·학조·설준은 욕망이 내키는 대로 간음하여 추문이 中外에 퍼졌다...”³²⁾

신미(信眉)는 간사한 승려 행호의 무리다. 무오년에 행호가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에 있는데 부녀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³³⁾

32)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조.

33) 『문종실록』, 2권, 문종즉위년 7월 9일조.

첫 번째 경우 교만하고 방자하며 위세를 부리는 것은 이들이 당시 불교의 중추 세력으로서 크게 활약한 것을, 곡식을 막대하게 늘렸다는 것은 불사를 위해 모연한 것을 왜곡하여 말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와 별개로 간음 사실이 지적되는데 이는 이들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다루는데 치명적이다. 두 번째 경우는 신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행호의 행적이 이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그 행호의 행적이라는 것이 바로 간음에 대한 것이다. 그에게 부녀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녀자 중심의 신도들의 신망을 크게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맥상 그러한 단순한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을 간음과 관련시켜 암암리에 행호를 부정적인 형상으로 몰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음행’은 불승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요컨대 신도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패배한 인물이며 그 실책과 악명이 조선 시대에 가장 주효하게 이용된 인물로 손꼽힌다. 특히, 당대 고승을 억압하는 데 신도의 악행과 그 영향이 근거 자료로 활용된 예는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요승 신도의 형상은 칙불을 주도한 사대부가 만들어 유포시킨 것이자, 그들의 이념적 승부를 위해 그 정도를 한층 강화시켜 가야 할 부정적 승상이다. 그렇다면 요승 신도의 이야기를 수습한 성현의 경우는 어떠한가?

성현은 설준이라는 고승을 죄인으로 주청한 일이 있다.³⁵⁾ 이로써 보면 성현 역시 당시의 사대부로서 배불 여론에 동조하여 고승을 요승으로 지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는 그가 당시

34) 참고, 「조선후기 문헌설화에 나타난 완승(頑僧)의 의미」,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251-254쪽.

35)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3일 기해조.

시간으로서 배불 여론을 수렴한 선상에서 문신들의 상소를 수합하여 주청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불교 내지, 고승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 밝은 안목을 지니고 있던 성현 역시 이러한 배불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현은 고승을 요승으로 분장하는 당시의 여론에 편승해 개혁승 신돈을 요승으로 분장한 이야기를 크게 개조하지 않고 자신의 문헌에 수습했다고 할 수 있다.

3) 우승

우승은 지나친 물욕 내지 성욕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승상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무사승' 설화 중 <상좌에게 골탕먹은 어리석은 중 1>을 중심으로 우승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무사승-일화

여기서 상좌는 두 번 스승을 골탕 먹인다. 이에 따라 스승은 두 번 낭패를 당하고 상좌를 혼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상좌의 말을 믿고 타이름으로써 그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문제는 어떤 계기로 상좌가 스승을 속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까치가 은수저를 물고 나무에 앉아 있다고 상좌가 거짓말을 하니 스승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스승은 까치를 잡으려는 것보다 그것이 물고 있는 은수저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상시에 스승이 은수저가 상징하는 물욕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 약점을 잡고 상좌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스승이 까치새끼를 잡아 구워 먹으려 한다.”고 하여 육식에 대한 파계 행위로 물고 간다. 즉, 은수저로 유인한 다음 까치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스승을 욱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승은 평상시에 물욕에 집착하고 있었

으며 상좌는 이를 노리고 스승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스승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상좌의 말을 끝이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지시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점에서 스승은 악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인물이며 따라서 그의 행동은 희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좌 역시 스승의 탐욕 어린 행태를 골탕 먹이는 수준에서 그치고 그 이상 횡포를 부리지는 않는다. 스승이 탐욕스럽기는 하지만 남에게 속기 잘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 욕심이란 것도 소박한 수준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속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평상시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좌가 스승을 속인 계기는 그 몰욕 때문이지만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이 순진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상좌의 스승 속이기를 통해서 신성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장승의 정체 내지 인간적인 면모를 폭로함으로써 그의 위상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 217화는 상좌가 스님의 공언에 반대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지만 승려의 몰욕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위의 이야기와 공통된다. 또한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노장승이 때리거나 욕보이자 이에 대한 반발로 상좌승이 다시 골탕을 먹이는, 후발적인 행위가 생겼다는 점에서도 둘은 공통된다. 최종적으로 노장승이 그 때문에 부끄러워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태평한화골계전』 245화는 스님과 상좌가 “괴이한 속임수와 기이한 꾀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승상을 드러낸 것이다. 『태평한화골계전』 221화는 몰욕에 집착하는 상좌승의 면모를 희화화한 것이자, 역시 주지로 표현된 노장승과 상좌승의 권력 관계 등을 암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시정에서, 혹은 문인들 사이에서 승려의 물욕, 이와 관련된 비행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장승의 이러한 면모는 승려를 천시하기 시작한 조선시대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전대부터 민간에서는 권위적이고 성스러운 승려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면모 내지 약점을 결부시켜 그 본 모습을 상상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승려가 천시 받고 억압 받는 시대에 들어서는 승려의 이러한 면모가 더 이상 상상력의 소산일 수 없다. 이는 승려를 억압하는 데 동원되는 약점 내지 옹가미일 뿐이다. 따라서 서사적인 차원에서 승려의 인간적인 면모 내지 약점은 그를 세속적인 면모로 그리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우승담의 찬집 의식

우승담은 성직자로서 권위와 식견이 있고, 품성이 곧을 것으로 기대되는 승려가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을 폭로하되 이를 골계적으로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승상은 이미 민간에서 회자되던 것이다. 유사한 이야기들이 구전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현은 시정에서, 이들 이야기들을 견문하고 자신의 문헌에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의 탐욕이라는 화제도 흥미로운데, 그것을 골계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이한 이야기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구전에 나타난 것과 성현에 의해 수습된 것은 동일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의의상 큰 차이가 난다. 민간에선 산간의 승려를 대상으로 호기심 내지 상상력에 의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빚어졌다면 성현 당대에는 불교의 폐해 내지 허망함을 드러내는 의미를 지니고 이들 이야기들이 시정에 유포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현의 의도 여하와 무

관하게 이들 이야기는 불교의 약점을 역설하는 의미로 문헌에 수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속승

조선시대 설화에는 일반 민간인으로서 세속적 사업과 기예에 골몰하거나 부역에 동원된 승려들이 많이 나온다. 이들은 승려로서의 본분을 지켜 존경을 받거나 반대로 그것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 주변에 사단을 일으키기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골몰하거나 그것을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조선시대 불교사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승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글씨를 잘 쓴다는 축구라는 중>과 <토목공사에 동원된 중>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 속승의 면모를 논의하기로 한다.

(1) 기예승-일화

<글씨를 잘 쓴다는 축구라는 중>에서 축구는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문사들 주변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니 독특한 불승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필법이 독곡[成石璣, 1338~1423]과 비슷하다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곡에게 똑같다는 인정을 받고는 크게 기뻐했다는 점에서 축구의 행태는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승려가 문사들 주변에서 서예 등의 기예를 연마하고 그들에게서 인정받는, 당대의 한 실상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이전 시대에는 유불 교류가 활발했고 승려들도 문사들의 기예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의 경지를 인정하는, 대등한 관계의 양상을 띠었다. 그런데 축구의 경우 자신의 본분을 제쳐두고 문사들 주변에서 그들의 본업에 골몰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둔우, 학전처럼 시가 내지 시구 행위를 통해 문사들과 교류하는 시승보다 왜곡된 정도에 있어서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축구는 자신의 필법이 특정 문사의 필법과 유사하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대체로 기예의 대가라면 누군가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축구는 유명 인사의 글씨를 모방하고 그것이 인정된 데 큰 만족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예의 대가로서도 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축구는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편자도 그런 의도에서 이 이야기를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청과극담』에는 벼슬아치와 내기 바둑을 해서 먹고 사는 스님이 등장하는데 벼슬아치 주변에서 그들의 기예로 삶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축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패관잡기』 4권에는 시승 설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명나라 태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를 지어 보낸 일 때문에 설옹이 기대한 바와 정반대로 매를 맞고 추방을 당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이들 이야기는 기예 내지 시로서 생계를 도모하거나 이름을 구하고자 하는, 당시 시승의 존재방식을 보여준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된 데에는 이러한 당시 시승에 대한 일화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역승-일화

<토목공사에 동원된 중>은 승려가 국가의 토목 공사에 동원된 실상을 전한다. 여기서 중은 왕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토목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공사에서는 쌀과 배를 많이 지급했는데도 중

이 비용만 없애고 여러 해 동안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왕이 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더디게 하여 왕이 결국 그것을 못 보고 승하한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일이 더디진 데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없애고 일을 더디게 했다는 것은 중을 부정적으로 본 결과이다. 이전 공사의 전말을 보면 그는 토목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껏 일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공사 때의 문제는 그것을 지시한 왕이 완성을 못 보고 승하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 앞에는 세조가 재간 있는 중에게 명해 사대원을 수축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앞서 말한 자비승의 경우 다리나 길, 우물 등을 고치는 일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당시 국가나 민간 차원의 토목 공사에 불승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 재능 있는 중이라 했으니 부역승보다 토목 기술이 뛰어난 불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불승이 배출되었다는 점을 볼 때 오랜 기간, 혹은 평상적으로 불승이 부역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자는 허망하게 산에 들어가 불도를 닦기보다 다리, 길, 우물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나라나 백성들에게 공덕을 끼친다고 하지만 이는 불교적 의미로 부역의 행적을 합리화한 것으로 보인다.

(3) 속승의 찬집 의식

축구의 경우 당시 문사들 주변에서 시작을 비롯해서 서예 등의 기예로 이름을 삼는 승려들이 많았음을 말해 준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예의 절대적 경지를 추구하기보다 특정 문사의 기예를 흉내 낸다고 함으로써, 그들

의 헛된 공명심을 희화한 것으로 보인다. 본분사를 잊고 기예로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기예의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솜씨나 정신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설옹의 경우, 본분사를 잊고 엉뚱한 일에서 헛된 공명을 추구하는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며 성현 역시 시작이나 기예에 대한 안목으로 이들을 낮추어 보면서 이들 이야기를 자신의 문헌에 수습했을 것이다.

부역승의 경우 왕실의 토목 공사와 관련된 일화란 점에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승려가 국가의 공력에 동원된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특이한 현상이며 그만큼 당시 불교 내지 불승의 처지가 급전락 했음을 말해 준다. 사대부들은 이를 당연시하면서 ‘부역승’ 관련 설화를 전승했을 것이다.

요컨대 당시 불교사의 특수성에 의해 부역승이라는 희대의 승상이 생겨났는데 사대부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대부로서 성현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관련 이야기를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3. 불승의 속화

1) 속화의 의미

서양의 경우, 기독교 사도의 중심인물인 베드로와 바울을 ‘어부’나 ‘그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으로써 그들의 신성한 행적을 속화하는 경우가 있다.³⁶⁾ 이는 일부 비신도들이 하는 일로 전직(前職)에 따른 비루한 칭호

36) Giuseppe Carlo Di Scipio, “Saint Paul and Popular Traditions, Telling Tales”,

를 써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행적을 깎아내린 것이다. 물론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속화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속화의 방식도 대상 인물을 극단적으로 깎아내리는 식은 아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일을 꾸며 낸 것도 아니다. 은근히 그들의 전직을 들먹여 그 권위를 흔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속화의 방식이 은근하며 교묘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승려를 깎아내리는 것은 같되 그렇게 온건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땡중’이니, ‘완승’이니 하며 아예 그 칭호에 비천하거나 부도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이래 승려가 철저히 배척당하여 멸종의 위기에까지 이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배척은 민간에까지 영향을 끼쳐 전 사회적으로 승려를 타기시하는 습속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구전설화에 나타난 승려의 형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시대 문헌 설화는 사대부 찬자가 자기 계층의 주변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대부 사회에서 승려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승려는 성/속이라는 이분법적인 의미 구조에서 ‘성’에 속한다. 따라서 속화는 승려의 성스러운 면모에 흠집을 내 세속적인 인물로 변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 본분사의 비중을 줄여 신성성을 약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극단적으로는 요승과 완승의 경우처럼 성과 권력을 매개로 부도덕한 인물로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속화의 방식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승상을 중심으로 속화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Medieval Narratives and the Folk Tradition, p.189.

2) 속화의 방식

(1) 신성성을 약화시키기: 고승

고승의 경우 승전의 구조 중에서 '구도' 등 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신비한 탄생담, 출가담, 영험담이 생략되는, 불완전한 승전식 서술이 되어 그 신성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를 세속의 기준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바로 '구도'라는 것은 속인들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는, 덕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도 과정에 수반되기 마련인 영험담마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현실의 경험적 주체에게도 인지 가능한 사건을 중심으로 결구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승려의 탈신비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승려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 효와 시안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승상을 세속의 논리로 평가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물론 불교에서도 효는 중요한 덕목이며 전대부터 승려들이 시작을 통해 문사들과 교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혼수의 경우처럼 고승으로서의 그 행적도 만만치 않은데 그들 중 많은 것을 생략하고 효와 시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고승의 삶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문헌설화에 등장한 고승의 경우, 구도, 효, 시안을 강조하는 그만큼 그의 본분사가 생략되고 신성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옹처럼 유명 고승이 일화로 다루어진 경우이다. 특히, 나옹은 고승으로서 일생을 살며 주변에 큰 족적을 남긴 전시대 최고의 고승이다. 그리고 고승으로서 그의 일대기가 행장으로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일화의 형식으로 그 삶의 일부만 수습했다는 점, 그래서 그 본분사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그의 면모가 세속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대부로서의 편자가 주로 같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간취한 데 기인한 것이겠지만 이들 고승 일화가 유생과의 갈등을 다룬 짙막한 에피소드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고승의 면모를 그 본분사보다 세속의 인간관계에 제한함으로써 승상을 세속화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성성을 무화시키기: 무애승, 시승

본분사와 관련된 승려의 행위를 회화화하거나 비천하게 만들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소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고승의 삶 중 세속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 본분사와 관련된 신성성을 소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애승의 경우 이타행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해를 입기도 한다. 혹은 이타행이 생계지책의 일환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단순한 과거행위로 비치면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 과정이 회화화되어 다소 우스꽝스러운 승상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애승은 신성성은커녕 세속의 사람들에게 비천한 인물로 보이기조차 한다.

시승은 시안이 뛰어나 그것으로 문사들과 교류하는 승려를 말한다. 또한 본격적인 의미에서 시승은 시작에 능해 직접 시를 써 문집을 남긴 승려를 말한다. 혹 어떤 승려는 시뿐 아니라 유학 경전 등 외전에도 밝아 유불의 사표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들이 시작에 큰 관심을 갖고 그로써 문사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전대에도 승려들은 시문을 중심으로 문사들과 빈번히 교류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승려들을 배척하는 논리가 횡행하는 가운데, 시작에 힘쓰고 시구를 위해 문사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행위는 전대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전대의, 평

등한 관계에서 시를 주고받는 것과 달리, 이는 불리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구차하고 비굴한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승려로서의 본분사보다 문사들 주변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하며 삶을 영위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시승으로 고착된 것은 승려의 본분사를 배척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조선시대 불교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 시대에는 불교 본래의 여러 덕목 내지 불사의 영험보다 당시 지배계층으로서 사대부의 덕목인 문예의 재능 등이 인물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서 시승의 면모를 포착하고 다른 덕목보다 이를 크게 평가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승하고 문헌에 수습한 문헌 찬자의 현실 인식 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대부는 고승의 삶을 조명하더라도 그 중 자신들의 본분사인 문예에 대한 안목, 재능 등을 기준으로 승려의 우열을 판가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승의 면모는 조선 시대의 특수한 불교사적 상황에서 그 문헌 찬자의 현실 인식에 의해 창출된 승상이라 할 수 있다.

(3) 우스꽝스럽고 비천하게 만들기: 우승, 속승

승려의 삶에 신성성을 부여하기는커녕 세속의 사람들보다 어리석고 탐욕스럽다는 점을 들어 이를 희화화하거나 혹은, 비천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경우를 말한다.

우승은 몰욕, 성욕, 무력함, 어리석음 등의 인간적인 면모 혹은 약점 때문에 곤욕을 치르되 그 과정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승상을 말한다. 승려의 인간적인 약점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면서 그 성직자로서의 면모 내지 본분사를 무시하고 더구나 이를 골계적으로 그려 시정의 웃음거리가 되게 한 예는 전대에 없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승은 조선시대 문헌 설화

에서 문제적 승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속승의 경우 문사들의 기예에 골몰하거나 일종의 사회적 천민으로서 부역에 동원된 승상을 말한다. 이들은 세속적 사업에 골몰한다는 점에서 승상을 박탈당한 경우로 당시 사원 철폐, 도첩제 폐지 등 배불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승려들이 결승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속승은 더 이상 종교적으로 경외의 대상이 아닌, 조선시대 불승의 사회적 처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형상인 것이다.

특히, 속승 중에서 기예를 추구하는 승상은 앞서 시승의 면모 중에서 승려로서의 본분사가 완전히 생략되고 오로지 문사들의 기예를 흉내 내고 그로서 만족을 누리는 형상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 시작의 재능마저 보잘 것 없다는 점에서 시정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역승의 경우 국가적 공역에 동원된 승상으로 천민이라는 승려의 사회적 처지가 반영된 사례이다. 하지만 이러한 속승의 사례를 조선시대 승려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그 기예를 추구한다는 것이 기껏 문사들의 기예를 흉내 내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든지, 그 기예마저 보잘 것 없다는 점, 그리고 부역승이 공역을 낭비하고 일을 더디게 한다 하여 문제가 된 점은 이들 승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속승은 당시 불교사의 처지에 따른 승려들의 삶의 양태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러한 삶 자체를 다시 부정적으로 다룸으로써 한 차례 더 세속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4) 부도덕한 인물로 만들기: 요승

요승은 권력을 전횡하면서 국가행정을 뒤흔들고 후세무민하는 승상을 말한다. 그리고 그 폐해가 국가나 일반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요승은 권

력 뿐 아니라 성과도 관련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신돈의 경우 권력의 힘을 빌려 민간 부녀자를 강간한다는 점에서 극악한 형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요승은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승상을 띠므로 전면적으로 세속화된 승상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힘과 강간 화소는 불승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데 유효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속화의 요인

(1) 시대적 배경

조선 초기 이래의 억불정책에 의해 승려는 위험하거나 천한 무리로 전락하였다. 더욱이 고승조차 국정혼란, 흑세무민 등의 죄를 입어 순교를 당하기에 이른다. 특히, 불교 안팎으로 영향력 있는 고승의 경우 불교 재흥을 시도한다는 혐의로 지배 계층의 표적이 되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승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 사회적으로 승려를 부도덕하고, 비천한 무리로 낙인찍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배불 정책에 의해 많은 승려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부역에 동원되는, 참혹한 지경을 맞게 된다. 특히, 승려가 부역에 동원된 것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특이한 현상이며 그만큼 당시 불교 내지 불승의 처지가 급전락했음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당시 사회 전면에 일어난 불교 배척이라는, 그로 인한 교세의 전락, 승려의 탄압이 승려의 면모를 세속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시 승려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신성한 면모가 탈각되거나, 순교를 당하는 식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놓임으로써 세속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문헌설화에 반영되어 세속화된 승상이 창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찬집 의식

세속화된 승상이 출현한 데에는 이상의 불교사적 특수성도 작용했겠지만 이들 이야기를 찬집한 문헌 찬자의 의식도 다소간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 찬자인 성현이 사대부라는 점, 그것도 조정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었으며 유학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그 손에 의해 현실의 승상이 다소간 변용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성현이 자기 주변에서 회자되던, 그리고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이야기들을 찬술했던 것을 상기하면 대부분의 승상은 그의 시각에서 걸러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찬자를 비롯한 사대부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여 승려의 삶에서 종교인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적으로 배척하는 대상인 그들 승려를 호의적인 시각으로 다루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찬자의 손을 거치면서 승상이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 승려가 속화된 것과 별도로 찬자 성현의 관심, 불교관에 따라 승상이 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용재총화』에 수록된 불승 관련 이야기를 대상으로 불승의 존재 방식과 속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선 승상이 고승, 요승, 우승, 속승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전기의 불교사적 특수성과 문헌 찬자의 불교관이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척불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승담이 존재하는 것은 오랜 불교 신앙의 여파와 당시 고승들의 활약상에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요승에 대한 이야기는 고승을 요승으로 지목하여 폄박하는 시대적 상황이, 우승과 속승에 대한 이야기는 불교의 전략에 따라 승려를 천대하

는 습속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네 승상은 조선전기 사대부 찬집 설화에서 승려가 취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의 총체라고 할 만하다.

적불의 시대 사대부 문인에 의해 창출된 승상이 세속화되었을 것임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보다는 속화의 의미, 방식, 원인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어야 하는데 불승의 존재 방식 부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방대해 정작 이들 문제에 다소 소홀했다고 본다. 다만 ‘신성성을 약화시키기’, ‘신성성을 무화시키기’, ‘우스꽝스럽고 비천하게 만들기’, ‘부도덕한 인물로 만들기’ 등 네 가지 속화의 방식을 설정한 것은 이후 속화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2, 1-336쪽.
김승호·임종욱, 『고려시대 인물 전승』, 이회, 1999, 1-454쪽.
김영태, 「조선전기의 도승 및 부역승 문제」, 『불교학보』 32집, 1995, 5-20쪽.
김영태, 『한국불교사』, 경서원, 1997, 1-521쪽.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4,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1-629쪽.
불교학연구회, 『한국고승집』(고려시대3), 경인문화사, 1974, 1-467쪽.
윤승준,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1-812쪽.
이강옥, 「용재총화의 장르구성과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73-106쪽.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1-569쪽.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0, 1-449쪽.
조현설, 『한국 서사문학과 불교적 시각』, 역락, 2005, 1-361쪽.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1-361쪽.
홍윤식 외,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1-353쪽.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혜안, 2005, 1-558쪽.

ABSTRACT

The way of existence and the secularization of the Buddhist priest as found in the folk tales collected in the writing during the Chosun Period
- centering around Yongjaechongwha(慵齋叢話) -

Park, Sang-Ran

I studied the images of the Buddhist priests in Yongjaechongwha in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the secularization, in this essay. To this end, I divided off the types of the Buddhist priests, and argued about the distinction as narration, the background of tradition, and the view of editing. And according to the synthetic examination of this, I discussed the subject of the secularization.

In the first place, that the images of the Buddhist priest are found a priest of virtue, an evil-working priest, a silly priest, and a secular priest. And they are resulted from the social circumstances, the social position of Buddhism and the priests, the agitation against Buddhism by Sadaebu including the editor of those years.

In the next, I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form of, and the cause of secularization. Specially, I created four ways of the secularization of the Buddhist priests. This is for the intention to examine fully, and make a fixed form the subject of the secularization.

Key Words Yongjaechongwha, the Buddhist priest, the images of the Buddhist priest, the secularization, the form of secularization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